



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“꺼지지 않는 에너지” GE 의 최첨단 종합 배전(配電) 시스템이 맡는다

-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열리는 모든 올림픽대회 경기장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(UPS) 공급
- 전 세계로 경기 모습 생중계 할 국제방송센터(IBC)에 고압배전반, 변압기, 무정전 절체장치(ATS) 등 GE 의 최첨단 종합 배전 시스템 구축

2017 년 7 월 12 일, 서울 - 올림픽 월드와이드 파트너 GE 는 오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열리는 모든 올림픽대회 경기장에 최첨단 종합 배전(配電) 시스템을 공급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올림픽대회에 활용될 GE 의 선도 기술은 전기 공급 과정에서 계측, 감시, 제어, 보호, 절체 등 종합적 기능을 수행한다. 특히 올림픽대회 경기장과 국제방송센터(IBC)를 비롯한 올림픽 시설에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고 연속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(UPS)를 설치하여,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한다. 이를 통해 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하여,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. GE 는 UPS 시스템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긴급상황 시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 전문가 26 명으로 구성된 팀을 배치할 예정이다. 네트워크로 연결된 UPS 시스템은 정비가 필요한 시스템 성능, 전력 품질의 변동, 전력공급 중단 등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공유하게 된다. GE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UPS 가 원활한 올림픽 운영에 필수적인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예방대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

이와 더불어 17 일간의 대회기간 동안 24 시간 가동될 국제방송센터(IBC)에는 고압배전반, 변압기, 무정전 절체장치(ATS)등을 포괄하는 GE 의 종합 배전 시스템이 구축된다.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(Mountain Cluster) 중심지에 위치한 IBC 는 6 천여 명의 국내외 방송 관계자들의 작업장이자 75 억 세계인에게 생생한 올림픽 경기를 생중계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는다.

GE 의 고압배전반은 전력제어 및 복합적 보호 기능과 온도, 습도를 알려주는 디지털 기능을 탑재해 온도 및 주변환경이 장비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동계 올림픽 시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기 오작동 확률을 낮추게 된다. 전력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관련 선로의 고압배전반을 원방 통신으로 감시, 제어, 절체하는 무정전 절체장치(ATS)는 디지털 방식의 PLC(Programmable Logic Controller) 기술에 기반하여 최초 프로그래밍 된 이후 완전히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됐다.

강성욱 GE 코리아 총괄사장은 “GE 의 첨단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요한 곳곳에서도 올림픽을 열망하는 세계인의 열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. 글로벌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GE 의 혁신 기술과 지난 12 년 간 이어온 올림픽 월드와이드 파트너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국제올림픽위원회(IOC) 존 폴 지안카를로(John Paul Giancarlo) 올림픽 기술 및 에너지 총괄은 “전력 공급 시스템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의 숨은 조력자로서,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”이라며, “GE 의 시스템과 운영



노하우를 통해 스포츠 경기장에서부터 국제방송센터(IBC), TV, 라디오, 온라인 채널에 이르기까지 올림픽이 원활히 운영되고 전세계인들 또한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전력을 공급할 계획”이라고 전했다.

GE 는 2005 년부터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운영에 필수적인 첨단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해왔다. 특히 이번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는 14 개 올림픽 대회 시설의 전력 사용량과 공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(EMS)을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제공한다. 또한, 대한스키협회와 지난 9 월 종합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선전을 위한 재정적,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. GE 는 자사 운영 플랫폼인 ‘프레딕스’를 활용한 첨단 기술을 통해 선수와 코치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선수의 경기력 및 건강을 증진하는 훈련 전략을 실시간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.

###

GE 에 대하여

GE 는 세계적인 ‘디지털 산업 기업(Digital Industrial Company)’으로,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계 및 솔루션을 통해 산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. GE 의 산업 기계와 솔루션들은 상호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대응과 미래 예측을 통해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합니다. GE 는 “GE 스토어(GE Store)”라는 글로벌 지식 공유 체계를 통해 GE 가 보유한 기술과 시장, 지식을 전사적으로 활용합니다. GE 는 인재와 서비스, 기술과 규모를 바탕으로 산업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합니다.www.ge.com

한국에서는 1976 년 공식 출범 후 첨단 기술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 및 정부와 상호 협력하며, 한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 동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1,500 명의 직원들이 발전, 석유와 가스, 전력 송배전, 항공, 헬스케어, 운송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특히, GE 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국내 연구개발 및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, 성남사업장인 GE 초음파코리아는 GE 헬스케어의 글로벌 초음파 진단기기 총 생산량의 1/2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

웹사이트 (www.ge.com/kr, www.geblog.kr, www.gereports.kr) 참조